

나하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전적지 (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구 해군사령부호역

항구평화기념 잊을 수 없는 20세기의 상흔들

문의
구 해군사령부호사업소
 〒901-0241 오키나와현 도미시로시 아자 도미시로236번지
TEL (098) 850-4055 FAX (098) 850-9342
 URL <http://kaigunou.ocvb.or.jp>

일반 재단법인 오키나와 관광 컨벤션 뷰로(OCVB)
 〒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오로쿠 1831번지 1(오키나와 산업지원센터 2층)
TEL (098) 859-6123 FAX (098) 859-6221
 오키나와 관광정보 시스템 URL <http://www.okinawastory.jp/>



■ 오키나와전으로 인한 전몰자수
전체 전몰자수
200,656명

일본측(188,136명)	미군측(12,5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도도부현(都道府県) 출신(군인 군속) 65,908명 오키나와현 출신(군인 군속) 28,228명 오키나와현 출신(전투 참가자) 56,861명 일반 오키나와 현민(추계) 37,1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이 사용했던 포탄 (1945년4월1일~6월30일) 2,716,691발 당시의 오키나와 현민 57만 4368명으로 나누면 1명에 대해 472발의 포탄을 사용한 것이 된다. 미군 제10포병사단의 포탄 사용수 (1945년4월1일~6월30일) 2,116,691발 오키나와현 내 불발탄 처리 실적 1,178,869발 구 해군호 유골수습 작업 상황 약 2,400명

구 해군사령부호 액세스

구 해군사령부호

참관료

	어른	아동
개인	440엔	220엔
단체 (20명 이상)	390엔	190엔

※어른 (고등학생 이상)
 ※아동 (초등학생 ~ 중학생)

개관시간 (연중무휴)
 8:30~17:30 (7월~9월)
 8:30~17:00 (10월~6월)

교통
 아사히바시(旭橋) (나하 버스터미널 앞)에서 55, 88, 98번 계통으로 우에바루단치 마에 (宇栄原団地前) 하차. 도보 5분 나하공항에서 택시로 약 20분

구 해군사령부호의 사령관이었던 오타 미노루 소장을 비롯한 간부 6명은 미군의 맹공을 받아 1945년 6월 13일 밤 권총 자결을 했습니다. 아래의 전보는 오타 소장이 해군 차관 앞으로 보낸 오키나와 현민의 현신적인 작전 협력에 대해 호소한 것입니다.



오타 미노루 해군 소장

062016번 전보 1945년6월6일 20시16분

발보인 오키나와군거지사령관

수보인 해군차관

아래의 전문이 해군차관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오키나와 현민의 신정에 관해서는 현지사로부터 보고되어야 하겠지만 현은 이미 통신할 힘이 없으며 32군(오키나와 수비군) 사령부 또한 통신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현지사에게 부탁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대신하여 긴급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키나와에 적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육해군 모두 방위를 위한 전투에 전력을 다하는바 정작 현민에 대해서는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한해 말씀드리자면 현민은 청년이나 장년 할 것 없이 모두 방위에 동원되었으며, 남은 노인이나 아이들과 여자들은 쉴새없이 이어지는 포격격으로 집과 재산이 불타버려 간신히 남은 맨몸 하나로 군의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작은 방공호에 피난하거나 포격격 아래에서 해매고 비바람에 노출되는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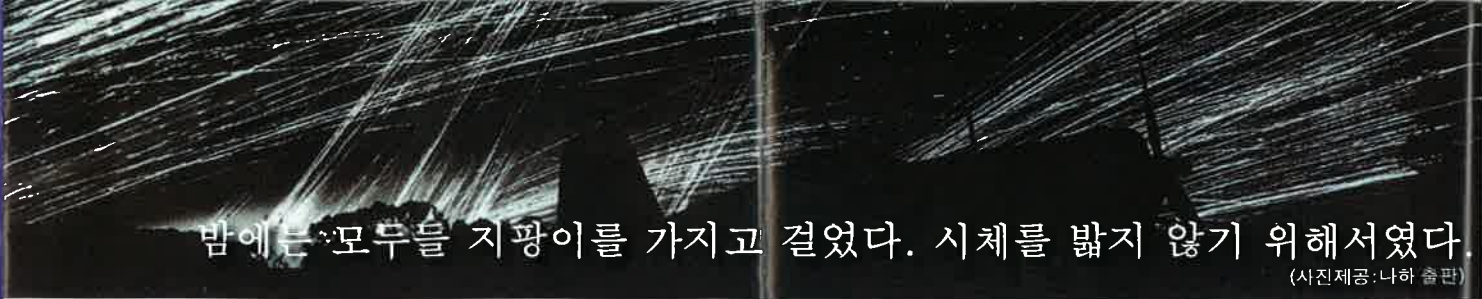
게다가 젊은 여성은 자발적으로 군에 몸을 던져 간호부, 취사부는 말할 것도 없이 포탄을 옮기거나 선발대 참가를 신청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 오면 노인이나 어린이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후방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다고 하여 부모와 자식이 생이별을 각오하고 딸을 군에 맡기는 부모도 있습니다.

간호부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군의 이동 시에 위생병이 벌써 출발해머려 의지할 곳 없는 부상자들을 도와 함께 해매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 작전에 큰 변경이 있어 멀리 떨어진 주민정규를 지정되었을 때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은 밤중에 자제의 힘으로 빗속을 북북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육해군이 오키나와에 온 이래로 현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근로 봉사과 물자 절약을 강요당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한다라는 일념을 가슴에 간직하면서도 결국 보답받지 못한 채 이 전투의 마지막을 맞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실정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 풀조차도 모조리 타버려 먹을 식량도 겨우 6월 한 달만 버틸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현민은 이와 같이 싸웠습니다. 현민에 대해서는 후세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전문은 원문을 현대문으로 고친 것입니다)



밤에는 모두들 지팡이를 가지고 걸었다. 시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진제공:나하 출판)

구 해군사령부호 JAPANESE NAVY UNDERGROUND HEADQUARTERS

1944년 일본해군 청영대(靑鸞臺)에 의해 파어진 사령부호로 당시에는 450m였습니다. 이 장소가 선택된 이유는 해군의 오토루(小瀬)비행장(현재의 나하 공항)에서 가까운 높은 언덕으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미군의 항공사격에도 견디어내고 지구전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령부호로서 전망이 좋고 전투에 투입할 경우 육안으로도 적과 야군 전체를 망라하기 쉽다는 것과 통신면에서도 강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4000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현후 환동방 방치되어 있었지만 수차례에 걸쳐 유골수습을 한 후(약 2,400체) 1970년에 300m 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 지역에서 히반부이(火船部)라고 불리지는 곳으로 유류탱크시대 때 중국에서 오는 배나 이곳산의 내항을 한시라도 빨리 수리성에 알리기 위해 불화를 올리던 장소였습니다. 후 무늬는 오키나와현이 운영하는「가이군고 공원(海軍壕公園)」으로 되어 있으며, 나하 시내와 도미구스쿠(豊見城) 시내 및 동중국해가 바라다보는 전망이 좋은 장소로 나하공항에서도 가장 가까운 전례적입니다.



■ 호 입구 계단

105년 30m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면 통로가 중첩으로 뻗어있는 호 안으로 이어집니다.



■ 막료실(幕僚室)

사령관실, 작전실과 가까운 이 방은 막료가 자갈할 때 사용했던 수류탄 파편 흔적이 당시의 모습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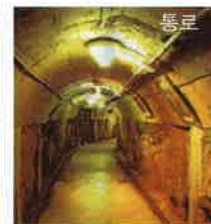


사령관실

■ 사령부호 내 약도 및 순로(順路) (→)



사령관실의 벽면에는「대군(군장 체하)의 것발 아래 죽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험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 오타 사령관의 예언가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키나와전 주요사항 연표 (1941년-1945년)

1941년12월8일	진주만 공격
태평양전쟁 발발	
1941년4월10일	해군, 오키나와 현민 근거리대 편성
7월18일	도조(東条)내각 총사직
7월22일	고이소(小磯), 오노에(小野) 내각 성립
8월8일	제32군 사령관 겸임
	무시지마 미쓰루 중령이 취임
8월22일	확충을 태운 소가섬(쓰시마마루)가 마부사키지마(墨石島) 앞바다에서 미군 잠수함에 의해 격침됨.
1945년1월31일	제32군, 현지 제2차 병무 소집
	만 17세에서 45세까지의 건강한 오키나와 현민 남자의 대부분을 소집함
2월15일	제32군「진주지섬」을 편하 군인에서 서거 표어「7기(機)1집, 1성(成)1선(戰)」
	11월 10일(機) 1선사, 통 공서
3월9일	도쿄 대공습
3월23일	미 기동부대, 오키나와 본토 공격을 개시
3월31일	미군, 슈레, 나베를 포격
4월7일	전함「아이토」이후, 오키나와와 구원의 해상부대가 도쿠노시마 앞바다에서 격침
5월31일	미군, 슈렌-정령
6월13일	오키나와 해군 주력부대(사령관, 오타 미노루 소장) 오토루(小瀬地區)에서 육박(玉碎)
6월23일	무시지마 사령관, 조(長)점오섬 남부 마부사에서 자결
6월27일	구메지마(久米島)에서 일본군에 의한 주민화살사건
7월22일	미군, 오키나와 작전 종료 선언
7월26일	대일(對日) 프로그 선포 발표
8월5일	미군, 핵요사섬에 핵폭 투하
8월9일	미군,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8월10일	일본 정부, 포츠담 선언 수락 신청
8월15일	천황, 중전 조서를 라디오를 통해 방송
9월2일	일본 정부, 미 합대 미츠리 호에서 함복문서서 조인
9월7일	휴규일도 수비군, 기여나의 미 제10군 사령부에서 함복문서서 조인